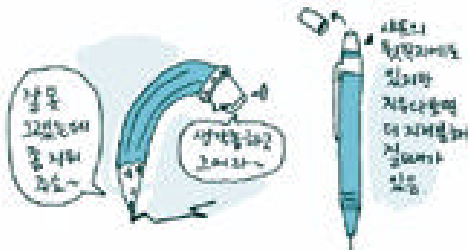


아무도 몰랐던 **물레발** 명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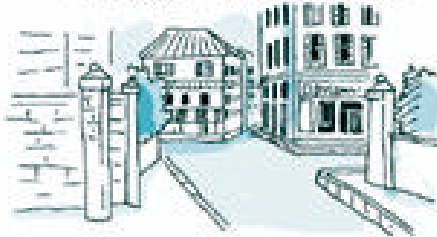
「하이양의 지우개 달린 연필, 2013년 김민재

어린시절 누구나 한번씩은 사용해본 적이 있을법한 지우개 달린 연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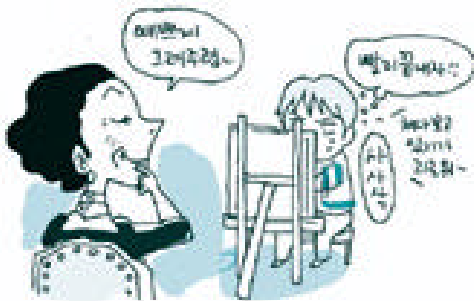


하지만 이 발명품은 당시 가장 유명한 하이양을 잃을것에 겁화로 만들어준 대단한 작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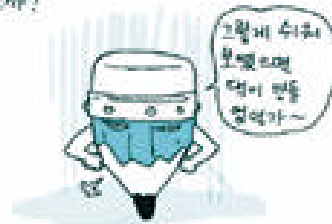
- 1965년경 미국의 필라델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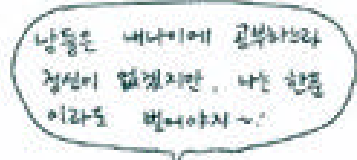
이러하여 하이양은 사람들의 인문화를 그려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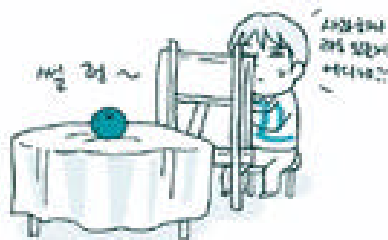
수많은 발명품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이만큼 단순한 발명품이 또 있을까?



당시하이양은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시간이 좀 흘러야하자 그는 집에서 평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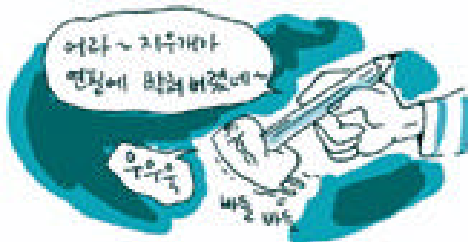
그림을 그리다 연필선을 잘못 그려 지우개를 찾았으나 쉽게 찢어 못하곤 방금 구석 구석을 뒤산 끝에 겨우 찾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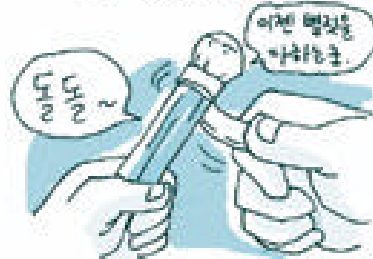
결국 그는 지우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



모든 방법이 실패를 돌아가버리고 그는 이회. 저런 생각에 무척성적으로 연필끝을 지우개에 대고 두들겨냈다. 그러던 중



무언가가 마흔 아이 디어가 떠오른 하이만은 양철조각으로 연필과 지우개를 합체시켜 보았다.



며칠뒤 하이만의 친구가 방문해 그의 지우개 달린 연필을 본게 되었고, 이를 본자마자



이리하여 1967년 7월에 그의 발명품의 특허가 출원되었고 그들은 '리버칩'이라는 연필회사와 계약을 맺었고 19년만 마쳐년 1천달러의 고안료를 받을 수 있었다.

